



2017학년도 경희대학교

온라인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사회계)

[7월22일~24일]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성명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문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7. **사회계열 문제지는 총 2장 3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수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는 데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다수에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메리카 체제의 대부분은 다수의 당연한 세력을 인위적인 수단으로 강화시키려 해왔다. 모든 정치제도들 가운데서 입법부는 다수의 의지가 가장 쉽사리 지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아메리카인들은 입법부의 구성원들을 국민이 ‘직접’ 그리고 ‘아주 짧은 임기로’ 선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것은 의원들을 선거구민들의 일반적인 신념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감정에 따르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아메리카에서는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다수의 권력을 우세할 뿐 아니라 막강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다수의 도덕적인 권위는 단 한 사람보다는 결합된 다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성과 지혜가 있다는, 그리고 입법자들의 수는 그들의 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개념에 부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평등이론이 사람들의 지능에도 적용되고 있다. 모든 다른 권력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떤 다른 권력보다도 다수의 권위는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을 요한다.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복종을 강요한다. 다수 권위의 법률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야 존중된다.

[나]

각 개인의 동의로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 때, 그들은 그 공동체를 한 몸으로 행동하는 힘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는데, 그 힘은 다수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만 나온다. 왜냐하면 하나의 몸으로 구성된 공동체는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기에 더 큰 힘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더 큰 힘이 다수의 동의다. 그렇지 않다면 공동체가 하나의 몸으로 움직이고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다수에 의한 결정에 동의하는 의무를 진다. 그래서 다수의 행위는 전체의 행위로 간주되며, 자연과 이성의 법에 의해, 전체의 힘을 가진 것으로 결정된다.

[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산을 갔다. 그런데 산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몇몇은 동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추측했고, 다른 몇 명은 남쪽일 거라고 느꼈는데,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바른 길을 찾기 위해 모두 모여 토론을 했다. 일행 중에는 이 산의 지리를 잘 아는 학생이 하나 있었다. 그 학생은 좀 가파르긴 하지만 서쪽 고개를 두 번 넘으면 내려가는 길이 나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덤불이 우거진 서쪽 고개를 쳐다본 어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길을 모르니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자고 했고, 어떤 사람은 각자 자신의 직감에 따라 흩어지자고도 했다.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여기 모인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투표를 해서 방향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사람들은 그 말이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투표를 했고 가장 많이 나온 ‘남쪽’ 방향으로 가기로 정했다. 결국 그들은 고립되었고 구조되지 못했다.

[라]

The British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Brexit, became a reality on June 24th, 2016. The result of the United Kingdom European Union membership referendum* was that the United Kingdom had voted to leave the European Union by 52% to 48%.

The British referendum was a disaster because it failed to achieve just about every single overarching* goal. Rather than provide clarification, the vote has instead caused confusion. Indeed, not even the exit from Brexit can be ruled out. Furthermore, far from pacifying the country, the referendum has created new rifts: between old and young, London and the provinces, the English and the Scottish. In the end, further referenda may follow, with the result that once powerful United Kingdom could be transformed into a

loose alliance of marginalized mini-states.

Still, as disastrous as the result has been, the British vote does not prove that there is no place in modern democracy for plebiscites.* Referenda can make sense if they are for local initiatives or on issues in which a sufficient number of voters have become engaged prior to the vote. But those who believe that referenda can somehow repair or even replace representative democracy are making a big mistake. Sometimes referenda make everything worse.

In Britain, the Brexit vote has laid the groundwork for a conflict between direct and indirect democracy because parliament, the majority of which is pro-EU*, could refuse to implement the will of the people. The idea of referendums is also often abused elsewhere in Europe as well. Take Hungary, for example, where Prime Minister Viktor Orban soon wants to allow his people to vote in a referendum aimed at rejecting an EU Commission plan to resettle refugees across EU member states.

The lessons from the British referendum disaster are clear: It's not more direct democracy that the EU needs. Rather, it is finally time to implement the long-discussed reforms of European institutions in Brussels. The next British government must strictly implement the referendum result if it doesn't want to transform the principle of democracy into a joke. At the same time, defenders of direct democracy should also understand that the instrument they champion is a limited one. It is then vital that those elected representatives are subject to effective checks and balances. As Thomas Jefferson, one of the 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 once said: "When the people fear the government, there is tyranny*. When governments fear the people, there is liberty."

*referendum: 국민 투표 *overarching: 무엇보다 중요한 *plebiscites: 국민 투표 *pro-EU: EU 찬성론자 *tyranny: 전체정치, 폭정

[마]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하면
상수원이 오염됩니다
그러니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차를 돌려 그 자리로 가
난간을 들이받고
강물에 추락하였습니다
기름을 흘리고
상수원을 만방 더럽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별의 문자 말입니다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해서
상수원이 오염되었습니다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것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느님도 모릅니다

[바]

단순 다수 대표제는 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이 당선자가 되는 선거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지지율로 당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전체 국민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05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은 고작 35%의 득표율로 55%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선거구별로 2위 이하 후보의 득표는 의석 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탓이다. 단순 다수 대표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놓고 결선 투표를 하는 '결선 투표제' 방식이 있다. 프랑스 대선도 이 방식으로 치러지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는 16명의 후보가 난립했다. 대선 전 여론 조사에서는 공화국연합의 자크 시라크 후보가 1차 투표에서 21%, 2차 투표에서는 51%로 각각 20%, 49%인 사회당의 리오넬 조스팽 후보자를 약간 앞설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후보의 지지율은 모두 10%를 밑돌았다. 하지만 1차 투표 결과, 결선 진출자는 우파인 시라크와 극우파인 국민 전선의 장 마리 르펜이었다. 조스팽은 6명의 좌파 후보가 그의 표를 잠식해 떨어졌다. 한편, 이스라엘과 네덜란드처럼 지역구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득표율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가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사]

직접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의 가장 실질적인 형태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 투표와 국민 발안 등이 있고, 지방 차원에서도

다양한 주민 투표와 주민 발안 제도들이 있다. 시민들은 이런 제도에 직접 참여해서 법을 만드는 입법자 역할을 하거나 주요 정책 결정에 투표하는 심판자가 되며, 나아가 다양한 정책 모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적극적인 참여자 역할을 한다.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는 현행 대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민주주의 결손'을 보완해 주는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시민의 정치적 소외를 감소시키고, 정부 등 국가 기관의 정통성이 공론에 의해 창출되고 확인되고 도전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론적인 정치를 가능하게 하며 자칫 무시될 수 있는 다양한 견해들이 표출되어 논의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정치적 대표성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이 논의되기도 하며, 정치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 좀 더 균등한 권력 분포를 지향하는 등의 장점들이 있다.

반면 대의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치인들은 직접 민주제의 도입을 반대하거나,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시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일반 국민의 판단보다는 자신들의 전문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심사숙고가 없는 판단을 경계하는 것이다. 시민 유권자들은 집단적 목소리 안에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며, 심각한 토의와 경쟁적 집단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을 투표에 맡기는 것은 비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표결과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는 누구도 될 수 없는 책무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문제 I>

제시문 [가]-[바]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배점 30점]

<문제 II>

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다], [라]를 비판하시오.

[601자 ~ 700자 이하: 배점 40점]

<문제 III>

어느 마을에서 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로부터의 탈퇴)에 대한 투표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이 마을은 총 100명의 청년과 장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마을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청년일 확률은 0.4이었다. 그리고 임의의 청년 한 명에게 물어보았을 때 찬성일 확률은 0.2이었다. 또 임의의 장년 한 명에게 질문하였을 때 반대일 확률도 0.2이었다. 청년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은 1/2이며, 장년은 3/4이다. 이 마을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고, 제시문 [나]의 주장에 대해서 논하시오.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700자)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 배점 30점]